

원안위,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명단 발표

지역주민, 시민단체,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 인사로 「현안소통협의회」 별도 구성 조사범위 등 의견제시, 조사과정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안 도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하여, 2월 22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하 조사단) 명단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성명	소속	추천 학회	분야
함세영 (단장)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대한지질학회	지하수 유동
고용권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방사선
김정석	조선대학교 금속재료공학과 교수	한국비파괴검사학회	기계·재료
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토목학회	구조·부지
서희	전북대학교 양자시스템공학과 교수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
조윤호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대한기계학회	기계·재료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한국콘크리트학회	구조·부지

앞으로 조사단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이슈와 의혹을 포괄하여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원인 파악 및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진행상황은 조사가 시작 되는대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원안위는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사단과 별도로 「현안소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현안소통협의회 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추천 비상임위원이 맡을 예정이며, 지역대표, 시민단체, 원자력계 각 2인의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현안소통협의회는 조사범위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사단에 전달하고, 조사단의 조사활동을 모니터링하며, 각계 자문 및 의견수렴을 거쳐 원자력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원안위에 제안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KMIF**